

일본어 접미사와의 교류에 관한 연구*

- 『增補訂正英和字彙』와 『韓英字典』의 비교 -

李 慈 鎬**

本稿では、近代日本の代表的な英和辞書『增補訂正英和字彙』(1882)と韓国開花期の代表的な韓英辞書『韓英字典』(1911)を資料に、専門用語838語とそれに使われた字音接尾辞の異同について分析した。両国間にはどんな語彙および字音接尾辞の交流があったのかその一面を明らかにするためである。その結果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一致する単語は62語で、総838語のうち7.4%にすぎない。まだ、1900年代初期、両国間の語彙交流は活発では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

2) 一致する単語には42種の字音接尾辞が使用され、総223種の18.8%を占めている。学問名に使用した「-学」が12語に用いられ一番多い。使用度数は低いが、「-省」のように近代日本語の影響をうかがわせる例も見えはじめる。

3) 『韓英字典』には、「万有定律」、「相思別曲」のような例があり、韓国語のほうが字音接尾辞の活用にまだ積極的ではない様相を示している。

本稿は、専門用語とそれに使用された字音接尾辞に限ったものである。今後、字音接尾辞の変遷および3字漢字表記語全体にその範囲を広げて調べる必要がある。

キーワード : 近代の訳語、辞書、専門用語、漢語、接尾辞
(근대 번역어, 사전, 전문용어, 한어, 접미사)

1. 연구 내용

어휘의 증가는 근대일본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새로운 문물이나 개념을 수용할 때,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어 가운데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단어로 조어된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매우 어려울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뿐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양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단어에 접사 특히 접미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근대일본의 상황은, 한국의 근대(개화기)¹⁾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서양의 근대 문물을 급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한국의 개화기에는 근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단어가 조어되거나 외국(주로 일본)으로부터 차용하게 되었다.²⁾ 이러한 경우, 주로 한자를 이용한 방법이 많은데 이것은 한자의 간결성, 조어력 등 한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함께 한자에 대해 학식이 있었던 지식인들이 주로 그러한 활동의 주체였다는 점에 의한 것이다. 또한, 중국보다는 일본에 의한 차용이 많았던 것은 강화도조약(1876)이나 을사조약(1905) 등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의해 일본(어)의 영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의한 양국 간의 어휘 교류의 일면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대역사전에 실려 있는 번역어 및 번역어에 포함되어 있는 접미사의 사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대역사전에 실려 있는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字音接尾辭의 異同에 대해 비교하였다.

柴田昌吉·子安峻編 『増補訂正英和字彙』日就社 1882

James Scarth Gale 著 『韓英字典』Fukuin Printing CO.

L'T 1911

1) 개화기는 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또는 갑오경장(1894년)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현식(1993), 송민(1988)에 따라, 강화도조약(1876년)이후를 개화기로 본다.

2) 송민(1988), 이한섭(2003) 등의 연구 참조.

『增補訂正英和字彙』는 에도(江戸) 말기·메이지(明治) 초기에 조어된 단어가 정착하는 메이지 중기에 출판된 사전으로, 메이지 말기의 영일사전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대역사전(英語 대 日本語) 『附音挿圖英和字彙』(1873)의 재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전이다.

『韓英字典』은 초판(1887), 재판(1911), 3판(1931)이 간행되는데, 초판과 재판은 요코하마(横浜)에서, 3판은 서울에서 출판된다. 한국 개화기의 대표적인 대역사전에는 언더우드(Underwood)의 『韓英字典』도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데 대해 게일(Gale)의 『韓英字典』은 페이지수나 어휘량 등의 면에서 한국 개화기 대역사전 중에서 가장 방대한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게일의 『韓英字典』이 언더우드의 사전보다 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초판(1887)이 아닌 재판(1911)과 『增補訂正英和字彙』(1882)을 비교하는 것은 『增補訂正英和字彙』(1882)의 번역어(일본어)가 한국 개화기의 대역사전에 실리게 된다면 5년 뒤에 출판되는 초판(1887)보다는 조금 시간이 경과한 재판(1911)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³⁾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增補訂正英和字彙』(1882)와 『韓英字典』(1911)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두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字音接尾辭를 이용한 단어가 실려 있다.

『增補訂正英和字彙』	『韓英字典』
大学校(university,n.)	大学校(a university.)
安息日(sabbath,n.)	安息日(the sabbath)
隔日熱(tertian,n.)	二日瘧(tertian fever)
妖術者(magicians,n.)	陰陽家(magicians)
新聞紙(newspaper,n.)	新聞紙(a newspaper)
注) 밑줄은 필자.	

위의 번역어 가운데, 「大学校」, 「安息日」, 「新聞紙」는 두 사전에

3) 『增補訂正英和字彙』(1192페이지), 『韓英字典』(1154페이지)로 두 사전의 페이지수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

모두 실려 있지만 「隔日熱」 처 「二日瘧」, 「妖術者」 처 「陰陽家」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瘧」, 「-熱」, 「-家」, 「-者」와 같이 字音接尾辭 使用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두 사전 사이에 보이는 번역어의 異同과 字音接尾辭의 사용 경향에 관해 분석, 비교하여 양국의 字音接尾辭 교류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자호(2010)에서 조사한 838語를 『韓英字典』과의 비교대상으로 한다. 이 838語는 『增補訂正英和字彙』의 번역어 중에서 전문용어로 분류한 용어로 모두 3字漢字表記語(2字漢字 + 1字漢字, 1字漢字는 字音接尾辭)의 구조로 된 漢語(字音語)이다.⁴⁾ 전문용어는 근대 일본어와 한국 개화기의 교류를 상징할 때, 가장 교류가 활발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용어이다.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일 때, 그 문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를 받아들여 되는데 많은 경우가 이전에 없었던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며 주로 한자를 이용하여 조어한 漢語(字音語)이다. 조어의 주체가 한자에 관한 교양을 갖춘 지식층이었기 때문이다. 전문용어로 사용된 漢語, 특히 字音接尾辭의 調査는 한·일 양국어의 어휘 교류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增補訂正英和字彙』는 표제어(英語)에 대응하는 번역어(漢語)를 실고 있다. 이에 대해, 『韓英字典』은 표제어(한국어)에 대응하는 번역어 또는 설명(英語)이 실려 있다. 따라서, 『增補訂正英和字彙』에 실려 있는 漢語는 『韓英字典』과 간단히 비교할 수 있지만, 『增補訂正英和字彙』의 표제어(英語)가 『韓英字典』의 다른 표제어(한국어)에 대응할 경우의 유무 및 그 번역어(한국어)와의 비교는 간단하지 않다.⁵⁾

본 논문에서는 『增補訂正英和字彙』의 표제어 「magicians」의 번역어로 실려 있는 「陰陽家」를 『韓英字典』과 비교할 경우 「陰陽家」의 한자음 「음양가」가 『韓英字典』의 표제어로 게재되어 있는지 살

4) 이자호(2010) p.177 참조.

5) 현재 釜山大学 「知能型開化期韓國語辭典」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한다.

펴보고 그 뒤에 쓰여 있는 한자표기로 「陰陽家」의 게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앞서 지적한, 영어에 대응하는 번역어 비교는 금후의 과제로 한다.

3. 『增補訂正英和字彙』(838語, 전문용어)의 특징과 『韓英字典』의 비교

〈表1〉은 조사대상인 838개의 단어를 字音接尾辭別로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⁶⁾ 이에 의하면, 2字漢字+1字漢字(字音接尾辭)의 구조인 838개의 단어에는 223개의 字音接尾辭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藥」이 가장 많은 전문용어 50개 단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論」 「-學」 「-法」 「-者」의 순서로 많다. 이것은, 838개의 단어에는 의학용어가 많은 점이나 서양으로부터 근대적 학문의 수용 등과 관계가 있다.⁷⁾

〈表 1〉 838개 단어의 字音接尾辭別 분포

순위	단어수	字音接尾辭	字音接尾辭의 갯수
1	50	-藥	1
2	46	-論	1
3	43	-學	1
4	30	-法	1
5	26	-者	1
6	24	-器, -病	2
7	22	-科	1
8	21	-類	1
9	20	-力	1

6) 이자호(2010) pp.178-179 〈표2〉를 재인용.

7) 총 838단어 가운데, 의학 276단어, 생물학 84단어, 공학 57단어 등이다.(이자호(2010) p.178 〈표1〉 참조)

10	16	-機	1
11	15	-質	1
12	14	-線	1
13	13	-熱	1
14	11	-管, -体	2
15	10	-筋, -物, -腺	3
16	9	-炎	1
17	8	-骨, -術, -葉	3
18	7	-膜, -門, -獸, -儀, -針	5
19	6	-家, -教, -党, -稅, -素, -數, -点, -形	8
20	5	-膏, -液	2
21	4	-單, -腫, -車, -花	4
22	3	-系, -鈎, -樞, -根, -年, -斑, -司, -師, -狀, -石, -說, -性, -星, -式, -室, -樣, -院, -瘡, -軸, -層, -齒, -彈, -筒, -板, -表, -血	26
23	2	-脚, -桿, -鏡, -頸, -計, -具, -球, -臼, -局, -宮, -規, -氣, -帶, -刀, -纜, -錄, -籠, -律, -面, -盤, -犯, -缶, -箱, -船, -省, -時, -食, -樂, -塩, -蕊, -元, -油, -人, -日, -子, -制, -足, -症, -艙, -鉄, -痛, -砲, -標, -風, -号, -環, -虫	47
24	1	-価, -角, -殼, -甲, -距, -臄, -格, -梗, -莖, -界, -庫, -孔, -果, -官, -觀, -光, -国, -圈, -櫃, -匱, -期, -囊, -紐, -泥, -堂, -大, -隊, -桃, -痘, -頭, -欄, -量, -路, -勞, -料, -流, -瘤, -痢, -網, -槍, -猫, -墨, -辺, -兵, -部, -扉, -蛇, -詞, -疝,	108

		-傷, -商, -象, -署, -所, -屬, -松, -垂, -樹, -水, -心, -鏢, -掩, -王, -外, -雲, -銀, -椅, -医, -引, -字, -場, -長, -痘, -錢, -折, -晶, -阻, -族, -宗, -罪, -主, -柱, -枝, -疹, -站, -創, -尺, -尖, -寸, -叢, -嘴, -則, -葩, -瓣, -胞, -苞, -票, -皮, -檻, -盒, -行, -響, -絃, -弧, -化, -貨, -湟, -会	
단어수	838	字音接尾辭의 總數	223

〈表2〉는 『增補訂正英和字彙』의 번역어 가운데, 「2字漢字+1字漢字(字音接尾辭)」로 구성된 전문용어 838개의 단어를 『韓英字典』과 대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表 2〉 『增補訂正英和字彙』와 『韓英字典』의 비교

번역어	단어 수		비고
一致	62		
不一致	776	540	전혀 다르다
		236	前部(2字漢字)는 一致
계	838		

『韓英字典』과 一致한다는 것은 해당 단어가 『韓英字典』에 표제어로서 실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838개의 단어 가운데 겨우 62개의 단어만이 『韓英字典』과 一致한다. 한편, 『韓英字典』과 一致하지 않는 것, 즉 『韓英字典』에 표제어로서 실려 있지 않는 단어가 776개나 된다. 사전의 규모도 비슷하고 1800년대 후반의 양국의 정치적,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의외로 일치하는 단어의 수가 적다.

「비고」에 「전혀 다르다」라고 한 것은 字音接尾辭의 앞 부분(前部)인 「2字漢字」를 포함하여, 해당 단어가 실려 있지 않는 것이고, 「前部는 一致」라고 한 것은 「2字漢字」는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字音接尾辭가 다르거나 字音接尾辭가 결합된 단어가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전자인 540개의 단어는 字音接尾辭가 결합하기 위한 語基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후자인 236개의 단어는 語基 그 자체는 실려 있지만 字音接尾辭가 다른 경우이다. 사전 편집상의 이유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언어의 교류라는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그 교류의 정도가 다소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1905년 을사조약으로 강제 한일합방을 사이에 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언어 교류가 있기 전 단계를 의미할 지도 모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번 논문의 조사는 『韓英字典』의 字音接尾辭를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는 다 알 수는 없다. 단, 838개의 단어(『增補訂正英和字彙』의 전문용어)와 대조한 결과(〈表2〉)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韓英字典』에서는 字音接尾辭를 이용한 造語 및 차용(=교류)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다만, 일치하는 62개 단어 외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字音接尾辭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적지 않게 있는데 각 분류별 성격과 字音接尾辭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일본의 근대, 한국 개화기의 언어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는 일치, 불일치라는 두 분류로 나누고 각각의 字音接尾辭의 사용 실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단어와 그 字音接尾辭

『增補訂正英和字彙』의 838개 단어 가운데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단어는 총 62개이다. 단, 이들 단어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이 서로 漢字의 사용이나 표제어의 형태에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있다.

例) 두 사전에 보이는 漢字의 사용 및 표제어의 차이
『增補訂正英和字彙』 『韓英字典』

百部根	百部근
細胞膜	細胞膜質
心胞炎	心包炎
鵝口瘡	牙口瘡
按察司	按察使
伝話機	電話機
破傷風	破傷風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漢字 표기의 일부를 한글 표기로 한 것(「百部근」), 비교하는 단어를 포함한 표제어(「細胞膜質」 「破傷風하다」), 같은 단어를 다른 漢字로 표시한 것(「電話機」)으로 보고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단어로 간주했다.

〈表3〉은 62개 단어를 전문 분야별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의학용어가 가장 많고 수학, 생물, 행정의 순으로 이어진다.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단어에는 「부골저(腐骨疽)」 「턴연두(天然痘)」 「혼련의(渾天儀)」와 같이 종래부터(=1900년대 이전)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보이지만 「갑상선(甲狀腺)」 「건축학(建築學)」 「경찰서(警察署)」 「재판소(裁判所)」 「전화기(電話機)」 「슈입세(輸入稅)」와 같이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사용하게 된 단어도 적지 않게 보인다.

〈表 3〉 전문분야별 분포

사용순위	단어수	전문분야
1	18	의학
2	7	수학
3	6	생물학, 행정
4	3	경제, 공학, 법률 철학, 기타
5	1	건축, 군사, 물리, 사회학, 심리, 어학, 정치, 종교, 지리·지질, 천문기상

한편, 이들 단어에는 총 42개의 字音接尾辭가 사용되고 있다. 총 42개의 字音接尾辭를 사용횟수순으로 나타내면 <表 4>와 같다.

<表 4>에 의하면, 이들 단어에 사용된 字音接尾辭는 「-学」이 가장 많고 이에 이어서 「-器」「-病」의 순서로 많다. 「-学」이 많은 것은 「리재학(理財学)」 「물리학(物理学)」과 같이 서양의 새로운 학문 분야의 수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도 의학 용어가 많다는 점은 서술한 바 있는데, 「-器」「-病」 등의 字音接尾辭의 사용은 「관장기(灌腸器)」 「생식기(生殖器)」 「전염병(伝染病)」 등 의학 용어가 전반적으로 많은 것에 기인한다.

<表 4>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단어의 字音接尾辭

사용순위	단어수	字音接尾辭	종류
1	12	-学	1
2	3	-器, -病	2
3	2	-膏, -根, -司, -省, -式	5
4	1	-炎, -花, -管, -機, -儀, -局, -系, -形, -骨, -詞, -主, -樹, -所, -署, -松, -数, -稅, -線, -腺, -疽, -層, -瘡, -隊, -痛, -党, -痘, -犯, -膜, -人, -熱, -表, -風, -葉, -力	34
	62		42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단어에 사용된 字音接尾辭는 42종으로 총 223종(<表 1> 참조)의 字音接尾辭 가운데 18.8%에 해당하는 字音接尾辭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增補訂正英和字彙』에 사용된 字音接尾辭 가운데 『韓英字典』에 사용된 字音接尾辭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치하는 단어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로, 총 62개의 단어 가운데 12개에 字音接尾辭 「-学」이 사용되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字音接尾辭는 적으면 1개 단어(「-機」「-線」 등), 많더라도 3개 단어밖에(「-器」「-病」) 한국어(=『韓英字典』)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主」(「造物主」) 「-所」(「裁判所」) 「-署」(「警察署」) 「-省」(「外務省」, 「海軍省」) 「-隊」(「歩兵隊」)는 단어수가 적은 점은 있지만 근대적 字音接尾辞 활용의 예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省」은 근대 이후의 일본어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자료)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단어

갑상선(甲状腺)	건축학(建築學)	격물학(格物學)
경찰서(警察署)	고소인(告訴人)	관장기(灌腸器)
국사범(國事犯)	다항식(多項式)	대수근(對數根)
락엽송(落葉松)	류행병(流行病)	윤리학(倫理學)
리재학(理財學)	립방수(立方數)	모세관(毛細管)
물가표(物價表)	물리학(物理學)	반창고(絆瘡膏)
백부근(百部根)	보병대(步兵隊)	부골저(腐骨疽)
사석층(沙石層)	삼변형(三邊形)	생식기(生殖器)
선복화(旋覆花)	성리학(性理學)	성홍열(猩紅熱)
세무사(稅務司)	세태학(世態學)	세포막질(細胞膜質)
수입세(輸入稅)	식물학(植物學)	신경계(神經系)
신경통(神經痛)	신리학(神理學)	심리학(心理學)
심포염(心包炎)	아구창(牙口瘡)	안찰사(按察使)
연경고(鉛硬膏)	외무성(外務省)	위생국(衛生局)
유형학(有形學)	이항식(二項式)	재판소(裁判所)
적분학(積分學)	전기력(電氣力)	전염병(傳染病)
전화기(電話機)	접근선(漸近線)	조물주(造物主)
진보당(進歩黨)	척량골(脊梁骨)	턴연두(天然痘)
팅흉기(聽胸器)	칠엽수(七葉樹)	파상풍(破傷風)하다
해군성(海軍省)	해응약(解凝藥)	형용사(形容詞)
혼턴의(渾天儀)	화풍병(花風病)	

5. 『韓英字典』에 실려 있지 않은 단어와 그 字音接尾辞

『韓英字典』과 일치하지 않는, 즉 838개 단어 가운데, 『韓英字典』에 실려 있지 않은 단어는 총 776개이다. 『增補訂正英和字彙』가 출판된 뒤, 30년 정도 지나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韓英字典』

典』에 채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강화도조약(1876) 이후, 을사조약(1905)에 의해 조선(한국)이 강제로 합방이 되어 일본어의 영향, 특히 전문용어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의외라 생각된다. 단, 776개의 단어 가운데, 540개 단어는 字音接尾辭(漢字一字)가 결합하는 앞부분(2字漢字)이 『韓英字典』의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字音接尾辭의 사용은 물론, 단어 그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236개 단어는 앞부분(2字漢字)이 『韓英字典』의 표제어로 실려 있기 때문에 字音接尾辭가 결합한 단어는 아직 한국어에서 이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전의 편찬 방침에 의해 字音接尾辭가 결합한 단어가 표제어로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 앞부분(2字漢字)이 『韓英字典』의 표제어에 있는 단어	
『增補訂正英和字彙』	『韓英字典』
acology, n. 藥劑學	약제
capitulator, n. 投降者	투항ㅎ·다
conservative party. 保守黨	보슈덕
methodology, n. 方法論	방법
personal right. 自主權	스·쥬ㅎ·다
注) 「약제」의 표제어는 「A medical compound」	

위의 예와 같이, 『增補訂正英和字彙』에 실려 있는 단어는 현대 한국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단어들은 『韓英字典』에 아직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을 뿐, 이후에 그대로 또는 字音接尾辭 등의 교체 등을 거쳐 한국어로 받아들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단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어(『增補訂正英和字彙』)와 한국어(『韓英字典』) 사이에 字音接尾辭가 다른 예도 보인다.

예) 字音接尾辭가 서로 다른 단어	
『增補訂正英和字彙』	『韓英字典』

analeptic, n. 回生藥	回生散
antiseptic, n. 防腐藥	防腐材
alexiteric, n. 解毒藥	解毒劑
alterative, n. 變質藥	變質材
blister-plaster, n. 癩胞膏	癩泡劑
	(blistering medicine)
cessor, n. 收稅者	收稅官
	(collector of a port.)
corrodent, n. 腐蝕藥	腐蝕材(caustic)
entrepot, n. 保稅庫	保稅倉庫
hydraulic press. 水壓櫃	水壓機
	(A hydraulic press.)
meridian circle 子午圈	子午線(meridian)
natural law 萬有法	萬有定律
serenata 相思藥	相思別曲
	(The name of a love song.)

注) 밑줄은 필자.

『增補訂正英和字彙』가 영어로 된 표제어에 일본어로 그 번역어가 실려 있는데 대해, 『韓英字典』은 한글 표제어에 한자표기어와 영어가 실려 있다. 위의 예에서는,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한글 표제어는 생략했다. 단, 『增補訂正英和字彙』의 표제어(영어)와 『韓英字典』에 실려 있는 영어(한글 표제어에 대응하는 단어 또는 설명)가 다른 경우는 괄호 속에 표시했다. 또한, 「blister-plaster, n.」의 「癩胞」와 「癩泡」와 같이 한자는 다르지만 통용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 외에, 『韓英字典』의 「entrepot, n.」, 「natural law」에 대응하는 단어는 字音接尾辭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이지만 『增補訂正英和字彙』와의 異同을 살펴보기 위해 예로 들었다.

위의 예를 살펴보면, 『韓英字典』에는 「萬有定律」, 「相思別曲」과 같이 아직 字音接尾辭를 活用하고 있지 않은 예가 보인다. 또한, 「保稅倉庫」와 같이 「倉庫」가 「庫」로 축약되어 있지 않은 예도 있다. 「定律」이나 「別曲」 등은 日本語(『增補訂正英和字彙』)보다 韓國

語(『韓英字典』)쪽이 근대 이후의 字音接尾辭 활용이 늦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단, 「水圧櫃」(『増補訂正英和字彙』)에 대해서 「水圧機」와 같이 「櫃」보다는 근대 이후의 字音接尾辭라고 할 수 있는 「機」를 사용하고 있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増補訂正英和字彙』에는 약품을 표시하는 단어에 字音接尾辭 「-藥」을 활용한 예가 많은데 비해 『韓英字典』에는 「-散(回生散)」, 「-材(防腐材)」, 「-劑(解毒劑)」와 같이 字音接尾辭의 対応關係가 일정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어(『増補訂正英和字彙』)의 경우, 약품 관계는 「-藥」로 대부분 통일했다고 보는 견해이고 또다른 하나는 韓國語(『韓英字典』)쪽이 적어도 약품 관계에서 다양했다고 하는 견해이다.

참고로, 현대의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어떤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윤영민(2011)을 참고로 살펴보았다. 윤영민(2011)의 조사에 의하면, 『日本國語大辭典』(제2판)에는 「-劑」가 사용된 단어는 209개, 「-散」이 사용된 단어는 42개가 실려 있다.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개정판)에는 「-劑」가 사용된 단어가 401개, 「-材」가 사용된 단어는 96개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藥」이 사용된 단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전문용어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현대국어사전으로서 대표적인 한국어와 일본어의 두 사전에 실려 있는 모든 접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본 논문과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대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藥」의 예가 실려 있지 않다는 점과 字音接尾辭의 사용 양상이 근대와 현대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마치면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근대(明治)의 대표적 영일사전인 『増補訂正英和字彙』(1882)와 한국 개화기의 한영사전인 『韓英字典』(1911)을 자료로 전문용어와 그에 사용된 字音接尾辭의 異同에 대해 비교하였다.

두 사전이 간행된 시기는 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을사조약(1905)으로 강제적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 간의 어휘 교류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본 논문에서는 『增補訂正英和字彙』(1882)에서 추출한 838개의 단어(3字漢字表記語=2字漢字+1字漢字, 1字漢字는 字音接尾辭)를 대상으로 『韓英字典』과의 일치, 불일치 여부와 字音接尾辭의 異同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 사전이 일치하는 단어수는 총 838개 중 62개의 단어만이 일치하였다. 7.4%로 일치율이 낮았는데, 한·일간의 정치적 관계, 근대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낮은 일치율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아직 양국 간의 어휘 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일치하는 단어에 사용된 字音接尾辭는 42종이 사용되었는데 총 223종의 18.8%에 해당한다. 학문명에 사용한 「-學」이 12개 단어에 사용되어 가장 많았다. 「外務省」 「海軍省」에 사용된 「-省」과 같이 근대 일본어의 영향이 서서히 시작된다고 여겨지는 예도 있다.

3) 한국어(『韓英字典』)에는 「万有定律」, 「相思別曲」(『增補訂正英和字彙』에는 「万有法」, 「相思樂」)과 같이 字音接尾辭의 활용이 아직은 일본어에 비해 적은 듯이 보인다.

이상과 같이, 당초 예상보다, 단어수와 字音接尾辭의 활용에서 일치도가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그러나, 일본어의 영향이라 추측되는 예가 보이고 있고, 字音接尾辭와 결합하는 앞부분이 일치하는 단어 등이 적지 않아 이들 단어를 중심으로 한 금후의 조사가 기대된다. 즉, 字音接尾辭가 다른 단어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가면 양국 간의 어휘 교류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전문용어와 그에 사용된 字音接尾辭에 한정된 조사라는 한계성이 있다. 금후, 3字漢字表記語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일반용어 및 字音接尾辭의 다양성 등 사용실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민현식(1993) 「개화기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편, pp.690-708.
- 송민(1988) 「日本修信使의 新文明語彙 接觸」『어문학논총』제7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pp.51-65.
- 윤영민(2011) 『현대 한·일어 접사의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논문, p.316.
- 이영희(2001) 『게일(Gale)의 《한영스·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p.68.
- 李慈鎬(2010) 「近代의 接尾辭에 대한 研究 - 近代 英日辭典의 比較-」『日本語學研究』第28輯, 한국일본어학회, pp.175-194.
- 홍사만(1997) 「한·일어 파생어 형성에 관한 비교 연구」『어문논총』 경북어문학회, pp.271-320.
- 李慈鎬(2005) 「『增補訂正英和字彙』における造語成分「者」」『早稲田日本語研究』14、早稲田大学、pp.37-48.
- 이한섭(2003) 「近代における日韓兩語の接觸と受容について」『國語學』54-3、國語學會(日本)、pp.71-84.

성 명(한 글) : 이 자 호

(한 자) : 李 慈 鎬

(영 문) : Lee, Ja-Ho

논문영어제목: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change of Suffixes
between 『韓英字典』 and 『增補訂正英和字彙』

소 속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E-mail : ljh2008@knu.ac.kr

투 고 일 : 2013년 12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